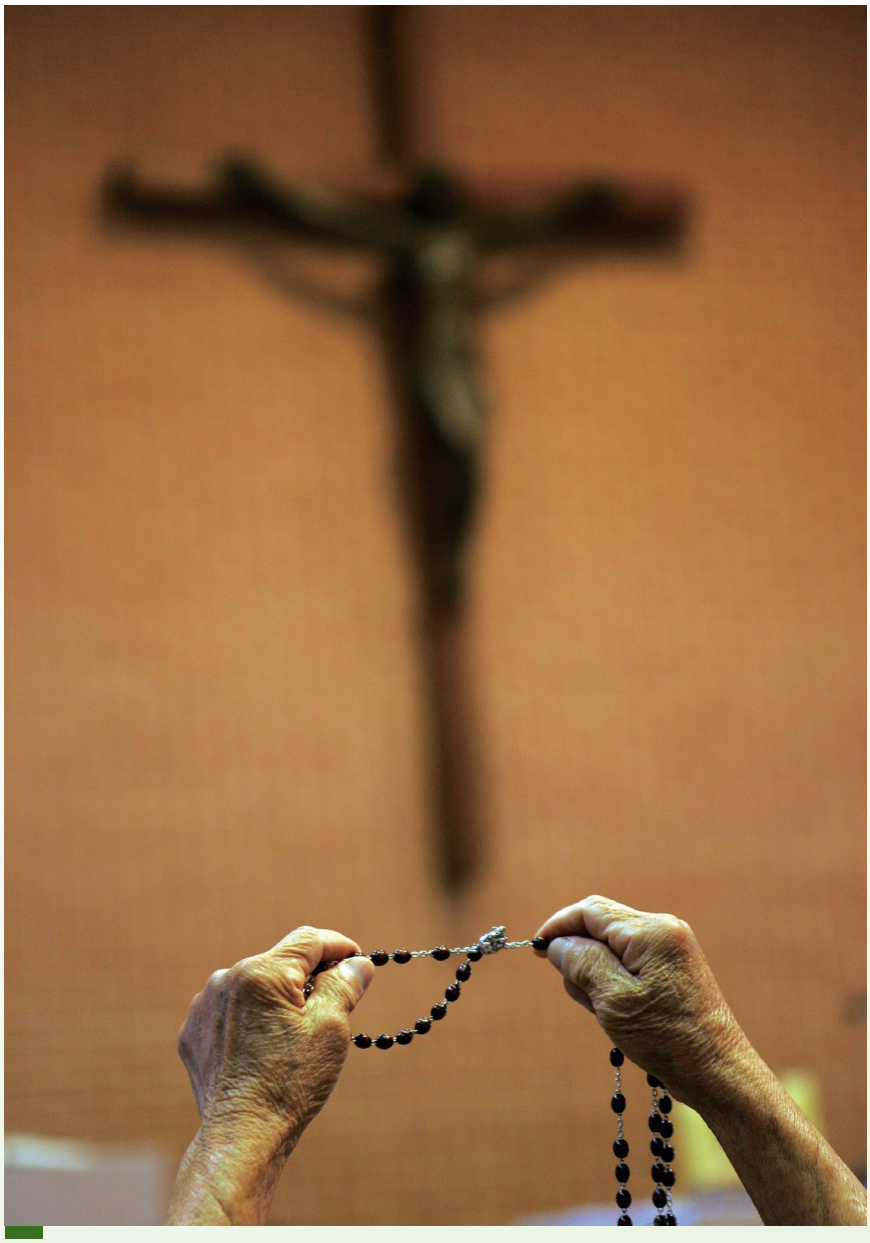
대구주보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2013.6.30.(다해) 제1842호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 오늘의 전례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루카 9,51-62 참조)

예수님인들 당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만나 서운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꿋꿋하게 육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허용되는 것이 목자의 직분을 받은 이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요긴한 도움은 바로 기도입니다.

➤ 영성사진 콘테스트 5월 당선작
〈은총의 기도〉
이도협 스테파노, 죽도성당

_ 사진설명 6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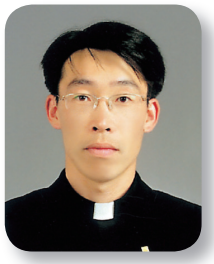
제1독서 1열왕 19,16ㄴ.19-21 **제2독서** 갈라 5,1.13-18 **복 음** 루카 9,51-62

입 당 송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예수님 마음, 교황님 마음, 목자의 마음



구자균 다미아노 | 교구 청년국 차장

가장만큼 한 가정에 대한 책임이 큰 이도 없고, 주임신부만큼 그 본당을 걱정하는 이도 없듯이, 교황님께서 지고 계신 짐을 그 누가 알까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두고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교황님은 구하고 계십니다. 최근 세 분 교황님들의 모습에서 이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순례하는 교황님이라는 별칭대로 세상 곳곳의 지역교회를 방문하며 그 땅에 축복하고 기도해주셨습니다. 또한 용서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교회의 근본정신과 정통성을 인식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셨고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새 교황님은 복음의 근본성이라는 뿌리에로, 검소한 삶에로, 인류에 대한 크나큰 관심, 또한 모든 종교들에 대한 크나큰 관심에로 돌아가자고 하시는 원의를 교황명 '프란치스코'에 담아놓으신 듯 연일 새로움과 신선함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스승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없애버리며 벌을 내리려는 두 제자의 단죄에 그러지 말라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러시며 비켜 가시는 그 모습에 기다리는 자비, 인내와 사랑이 전해오는 예수님의 마음, 당신을 따르고자 큰 용기를 내어 찾아오는 이들에게 뒤돌아봄 없이 따르라는 단호함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루카 9,51-62)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콘클라베 직전 추기경단 회의 중에 했던 베르골리오 추기경(현 교황님)의 담화를 요약한 편지의 일부는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교황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복음화는 사도적인 열정을 내포합니다. 복음화는 교회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뛰쳐나오는 용기의 의미 또한 교회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더 **변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존적인 의미로도 그러합니다. : 죄의 신비가 있는 **변방**, 고통과 불의의 **변방**, 무지와 종교적 무관심의 **변방**, 사고의 **변방**, 모든 형태의 불행이 존재하는 **변방**. … 차기 교황님은 이러한 분이길 희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묵상과 성체조배를 통해 교회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실존적인 변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복음화의 부드럽고도 흥겨운 기쁨'을 살아가는 풍성한 어머니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길 바랍니다."(2013년 3월 28일 Osservatore Romano에서)

교회의 정통성을 굳건히 하면서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해 온 가톨릭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이어온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교황님들의 언행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잘 드러내줍니다. 평화방

신앙의 해 교리 퀴즈⑪

Q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수난하셨습니다. 흠도 티도 없고 무죄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파스카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시기 직전에 사제의 입을 통해 세례자 요한이 한 이 말을 되풀이하여 듣습니다.

신앙의 해 특집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⑱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실 수 있도록

문화홍보실

사목헌장은 인간의 정체와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활동과 그 의미를 다루고 난 후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들여다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을 여행하고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나 기관을 의미하기 보다는 앞서 교회헌장을 공부하면서 배운 대로 무엇보다 먼저 '성사', 곧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도구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하느님을 공경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앙에 적대적인 이 세상,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 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는 것, 곧 구원의 성사 노릇을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신자들, 즉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도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지체이고, 예수님의 살이 우리 살에 섞여 있으며 우리 혈관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가는 곳에 손발이 따라간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이 되신 하느님, 즉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능력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저기를 다니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셔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정신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우리가 잡아주는 손, 우리가 입을 열어 하는 말을 통해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나 강요가 아닌 사랑의 대화

교회는 이 세상에 '누룩'과 같은 존재, '영혼'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도록 일깨우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도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을 따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고 당신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셨으며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당신의 몸을 헤쳐 사람들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먹일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몸입니까? 퀴즈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　　)"이라고 표현한다. …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는 고난 받는 종의 속죄 사명을 완수하신다." (가톨릭교회교리서 608, 623항)

이 코너를 오려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심과 사도직⑤

매리지 엔카운터(ME)

문화홍보실

세계적인 부부일치운동인 매리지 엔카운터(Marriage Encounter, ME)는 출산율은 떨어지고 이혼율은 높아지는 오늘의 가정 위기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해가는 가톨릭 신심운동으로, 부부와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드물었던 1970년대 후반 한국 교회에 들어와 큰 반향을 일으키며 부부를 중심으로 한 사랑의 가정 공동체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선교에 기여해왔습니다.

Marriage Encounter의 머리글자를 딴 ME는 혼인의 재 만남, 혼인생활의 새로운 발견 그리고 부부들이 모여 대화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혼인한 부부들이 대화를 통하여 더 깊은 사랑과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ME의 핵심은 보통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주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2박 3일 과정의 '주말'입니다.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결혼생활 5년 이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살아가는 부부들도 '주말'에 참석한 뒤엔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박 3일 주말에 참석하기 어려운 일반 부부를 위해서는 '참 부모', '참 부부', '사랑의 언어', '본당은 우리' 등 다양한 사도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ME는 1950년대 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교구에서 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던 가브리엘 칼보 신부님이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부모들을 먼저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1962년에 28쌍의 가난한 노동자 부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그 후 베네수엘라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전파된 ME는 세계 각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현재 세계 90여 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ME는 1976년 2월 영어로 실시한 '주말'이 시초이며 여기에 참여하였던 한국인 부부에 의해 이듬해 3월에 한국어 주말이 마련되었습니다. 대구대교구에서는 1979년에 서울, 안동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ME주말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7,000쌍이 넘는 부부와 320여명의 성직자, 수도자가 이 주말을 체험하였으며, 연간 11회 이상 실시되는 ME주말에 매번 25~30쌍의 부부가 참여 하고 있고 35쌍의 부부가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90여 개의 본당에서 ME모임을 갖고 참가자들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E는 결혼한 부부가 대화를 통하여 더욱 깊고 친밀한 부부관계로 성장하고 하느님 계획대로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 기쁨이 넘치는 결혼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운동입니다. 혼인성사의 은총을 통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오늘날 꼭 필요한 사도직 활동입니다.

ME의 로고 사랑과 믿음으로 출발한 부부가 일치하면 할수록 하느님께서 그 가운데 더욱 함께 하시고 부부의 마음이 서로 멀어지면 하느님과도 멀어지게 된다는 의미다.

한 번 사제는 영원한 사제!

미국의 어느 주교님께서 교황님을 알현하기 위해 로마에 갔습니다. 주교님은 로마시내의 한 건물 앞 계단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에게 시선이 멈춰졌습니다. 더부룩한 수염에 지저분한 옷을 입었지만 그는 분명 주교님이 신학생 때 로마에 유학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서품을 받은 친구 사제였습니다. 주교님이 그 사제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다가가자 그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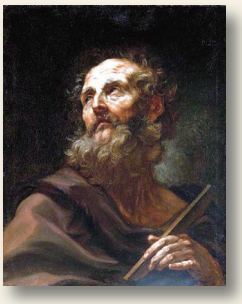
다음 날 주교님은 교황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교황님은 주교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주교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그 곳에 가셔서 아직도 그 분이 구걸을 하고 있거든 제게로 모시고 와 주십시오." 주교님은 다시 그 계단 앞으로 가서 자꾸만 피하려는 그를 붙잡고 통사정을 해가며 간신히 교황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를 만난 교황님은 주교님에게 단 둘이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거지와 교황님만 남게 되자 교황님은 즉시 무릎을 꿇으며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청합니다."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당황한 거지 사제는 "저는 사제로서의 모든 권한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고해성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황님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로마 주교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신부님께 사제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시 드립니다. 제게 고해성사를 주십시오." 꿇어앉은 교황님에게 고해성사를 주는 거지 사제의 눈에서 쉬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교황님의 고해성사가 끝나자 이번에는 거지 사제가 교황님 앞에 꿇어 고해성사를 청했습니다.

거지 사제의 고해성사가 끝나자 교황님은 그가 구걸하고 있는 거리의 이름을 묻고 그를 그 거리의 고해신부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거리의 부랑아들과 거지들의 고해신부로서 누구보다 구걸하는 사람과 떠도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아는 아버지로서 존경받으며 지금까지 충실한 사제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아우스 크루키 호이테지 2001년 10월호에 "한 번 사제는 영원한 사제이다."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이 글은 사제직을 떠났다가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 어느 사제의 이야기입니다. 퍼온글

금주의 성인



사도 성 토마스(7월 3일)

열 두 사도들 중 한 분으로 쌍둥이라고도 불린 토마스 성인께서는 특히 요한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한다. 성인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나서야 비로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 28)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부활 신앙을 전하신 분이시다. 전승에 의하면 성인께서는 목수로 일하면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셨다고 한다. 중세에 건축가와 석공의 수호성인으로 공경 받으신 성인께서는 1972년에 바오로 6세 교황님으로부터 인도의 사도로 선언되셨다.

▪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 축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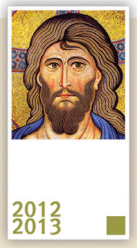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제5대 수도원장으로 선출된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의 축복식이 6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왜관수도원 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 한국 SOS 어린이마을 50주년 기념식

6월 22일(토) 오전 11시 한국 SOS 어린이마을(본부장: 박상호 요한 신부)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께서 주례하신 감사미사에 이어 기념식, 축하연,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 〈빛〉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5월 당선작 선정



- **최우수상 : 〈은총의 기도〉 이도협(스테파노, 죽전성당)**
  할머니의 거친 손과 묵주, 그리고 십자고상! 기도 중에 함께하시는 그 분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성당 안, 양팔을 들어 묵주기도를 바치고 계신 할머니.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뎌 낸 주름 진 손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 **우 수 상** : 〈천국으로 가는 길〉 이종개(베네딕토, 대신성당)
- **장 려 상** : 〈사랑〉 박춘화(보나, 성당성당)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연중 제11주일(6월 16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⑨ 정답은 **〈개별 심판〉**입니다.
당첨자 : 이언영(소화데레사, 경산), 신동호(F.살레시오, 수성), 김지현(세실리아, 연일), 여혜련(베로니카, 인동), 용환수(안젤라, 경산)

더 좋은 일이라면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7월 1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7월 1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7월 1일(월) 11:00 계산성당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례미사	7월 1일(월) 22:00 한티순례자의집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7월 1일(월) 11:00 죽도성당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7월 6일(토) 11:00 성모당
7월 후원자 가정을 위한 월례미사	7월 1일(월) 11:30 한국SOS어린이마을 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7월 6일(토) 9:30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성소 | 피정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7.14(일) 14:00, 본원
다음카페: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성소상담: 김라우렌시아 수녀, (010)5449-3166

예술치유지도자과정· 한티성지 피정
예술(음악)치유 지도자 과정
6차: 7.5(금)~7(일)
7차: 7.8(월)~10(수)
완덕의 길 피정: 7.20(토) 10:00
예수마음기도 피정: 7.22(월) 10:00
문의: 한티순교성지, (054)975-5151

아프리카들꽃마을후원회 아가페 월 피정(미사, 강의)
일시: 7.1(첫 월요일) 13:30
장소: 꾸르실료 교육관
지도: 최영배(비오) 신부
문의: (010)4804-7574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7.6(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성모님과 영적치유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전교가르멜 성소 식별 피정
기간: 7.5(금) 20:00~7(일) 14:00
장소: 인천 계산동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010)2859-7765

부산5차 성경통독 효소단식 피정
기간: 7.12(금)~15(월) (3박4일)
장소: 부산 광안리 성분도은혜의집
회비: 32만 원, 주관: 가톨릭교수회
문의: 피정의집, (051)753-5744
(010)9363-7784 / (010)3806-7784

오씨예(Oh! See-Jesus)젊은이 일일 피정
일시: 7.14(일) 9:30~18:00
대상: 35세 미만의 미혼 남여
장소: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바틀로 교육센터
문의: (010)5517-8833, 회비: 1만 원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여름 성소 피정
중고등부: 7.29(월)~31(수), 경남 산청
일반부: 8.9(금)~11((일), 전북 장수군
문의: (010)9890-8809, 비용: 4만 원

교육 | 모집

기도수행(렉시오 디비나)
기간: 7.15(월)~20(토)
장소: 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도회(고성)
주제: 렉시오 디비나 원리와 실제
문의: (010)2816-1986
blog/olivetanomaria

2013 모하기(예수회 수도생활체험학교)
기간: 8.8(목) 14:00~11(일) 15:00
장소: 예수회 센터(서강대학교 옆)
주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
대상: 남녀 고등학생
문의: (02)3276-7706
(010)5507-1491

2학기 원격평생 교육원생 모집
학점은행제 자격증 및 학위 과정
개강: 7.4(목),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문의: 가톨릭상지대학교,
1577-0361(www.cec.or.kr)

미소인치과
원장 이 종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화, 목 야간진료
www.misoindental.com

유방 갑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반월당네거리 농협 3층
T.053)252-6875

미 래 필 름
건축용 열차단 / 차폐필름
안전필름 / 방범필름 / 각종시트지
나노윈도우필름 대구경북 총판
홈페이지 : www.nwf.co.kr
박시연 (마테오), 서문숙 (로사리아)
전화문의 : 010-3374-3984
★ 필름조성물에 의한 국제특허 2건 , 국내특허 1건 보유

어혈치료(금진옥액 요법)
서문한의원
• 중풍예방 • 편두통
• 무릎,어깨관절통 • 화병
• 간해독 및 장정소
원장 김 형 철(루카)
월~금 야간진료(저녁9시까지)
☎ 053)572-8721~2

경대플러스정형외과
KYUNGDAE PLUS ORTHOPEDIC CLINIC
원장 손영헌(프란치스코)
어깨/무릎/허리/관절 클리닉
626-5575
남대구홈플러스 옆 KT&G빌딩 1F

나가사키 성지순례
제4차 9월25일~28일(카멜리아)
순례경비 59만 5천원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DAEWOO 서브마린리조트
170명 연회장(대,중,소 연회장 완비)
객실 68개 취사,복층구조(초,중,고 수련회 환영)
해수사우나, 노래방, 스크린골프,
한,일식당, 커피숍, 편의점 완비
www.submarineresort.co.kr
예약문의 054)293-1200 나종기(요아킴)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549-1

전국최대 보험판매 전문법인
지에이코리아 GLOBAL ASSET KOREA (주)참사랑지사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형제,자매님을 찾습니다!
생,손보 22개사 제휴 – 대구,구미,경산 근무 가능
대표 이남수(윤일요한) 010-2514-2306
대구 삼덕동 진석타워 8층 053-720-3600

PBC 대구평화방송 (FM 93.1MHz) 오늘의 강론 7월 1일(월) ~ 7월 6일(토) 07:00, 18:50 장천주(다니엘) 신부

행사 | 모임

이해인 수녀님과 함께하는 기도시와 삶의 이야기
일시: 7.5(금) 19:30, 죽전성당
노래: 김정식(로제리오) 형제

대구대교구 대안교육 산자연학교 여름 캠프
기간: 8.5(월)~8(목), 3박 4일
장소: 경북 영천 산자연학교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있는 초·중·고
문의: (054)338-0530

교육 | 모집

차동엽(노르베르토) 신부님 영성강좌
일시: 6.30(일) 14:00~17:00(감사미사)
주제: 그리스도인의 희망
장소: 용계성당

겨자씨성서 한길 모임 수강생 모집
기간: 8.30~11.29(매주 금) 10:00
대상: 65세 이상 교구 내 모든 신자
문의: 625-4627 / (010)6520-4627

청소년 문학캠프-여름 엠마우스
기간: 7.26(금)~28(일), 2박 3일
장소: 밀양영화학교(가톨릭문인회 주관)
회비: 3만 원, 7.22(월)까지(종교무관)
내용: 강의, 습작, 발표, 체험 등
문의: 총무, (010)8319-2119

가톨릭 한중(韓中)친선협회 회원 모집
대상: 중국어 초급정도의 모든신자
내용: 매달 친교모임 및 소공동체
중국어(성경반, 회화반, 전례반)
중국(비즈니스반, 문화교류반 등)
문의: (011)808-8018

길벗 월례 영성강좌
일시: 7.8(둘째 월) 19:30, 월성문화관
7.9(둘째 화) 10:30, 꾸르실료교육관
내용: 그리스도인 신앙과 영성의 핵심
대상: 예수 중심의 삶을 원하는 신자
문의: 대구 CLC, 752-0555

닥종이 인형전이 있는 청소년영성포럼
일시: 7.13(토) 13:30~19:30
장소: 청소년영성의집, 카페: 우아청
주제: 4G시대의 새로운 복음화와 영성
참가비: 2만 원(석식 포함), 사전접수
문의: (02)832-2654 / (010)3883-7004

향심기도 소개 워크샵
일시: 7.29(월) 10:00~17:00
7.30(화) 10:00~17:00, 본리성당
강사: 이청준 F.하비에르 신부(마산교구)
대상: 향심기도를 하시는 분 / 1만 원
문의: (010)7795-0639, 도시락개인준비

기분좋은 대화, 행복한 삶 강좌(4회)
기간: 7.17(수)~18(목) / 7.23(화)~24(수)
시간: 14:00~16:00 / 19:00 21:00
장소: 프란치스카눔, 비용: 10만 원
대상: 의사소통을 원하는 모든이
문의: 황광우 신부, (010)3762-1670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후기신입생 모집
일반 및 특수대학원(경영,디자인,신학, 사회복지, 음악, 국제·다문화, 보건의료)
접수기간: 7.1(월)~5(금)
문의: 850-3637(일반)
660-5512(특수)
http://www.cu.ac.kr

13학년도 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6.24(월)~7.15(월)
분야: 21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문의: 850-3505

채용 | 안내

교구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권두형(루치나)
박회직(알베르또)
문의: 253-9550

2013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가격: 3천 원(총 90쪽)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9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자격증 취득 전문 학원
북구음식나라조리학원
한식조리사기능사반 복어조리기능사반
양식조리사기능사반 국비재직자반
일식조리사기능사반 국비계좌제반
중식조리사기능사반 출장조리반
053)958-7500 / 010-3817-6895
대구시 북구 대현동 270-7 삼주빌딩 3층
대표 프란치스코(서정발), 아네스(김복순)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결혼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미팅횟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젬마) 박요안나
상인점 홈플러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고 입구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 · 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흠(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주)한투어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성모발현지(루르드,파티마,과달루페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외 다수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귀금속 최고가 매입
순금, 백금, 18K, 14K
다이아몬드, 은수저, 치아금
황금점 : 황금동 데레사소비센터 內
복현점 : 복현동 농협 하나로마트 內
(주)한국금은거래소 ☎763-8838

영원한 생명에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010-8345-9479
이주석 (요셉)